

신종 코로나 대비 나선 이통3사

진료소 정보제공·비대면 채널 강화... 통신비 감면엔 “아직”

KT ‘원내비’ 근처 진료소 확인·안내
SKT 미리 상담, 주변 대리점서 개통
LG U+ IPTV서 감염증 내용 송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통신망을 활용한 진료소 정보제공, 비대면 채널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 고시한 진료소는 약 500개소다. T맵 검색창에 ‘코로나, 신종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격리치료소’ 등을 입력하면 근처 진료소를 찾아 이동할 수 있다.



KT 모델이 KT샵과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KT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KT

KT도 자사 내비게이션 서비스 ‘원내비’에서 ‘신종코로나진료’를 검색하면, 진료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 안내를 하도록 했다.

대면이 필수적인 대리점 차원의 대응도 이뤄지고 있으며, 전화나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비대면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전국 고객방문 및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하고, 사용 지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미리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단말을 구입하고 주변 대리점에서 빠르게 개통할 수 있는 ‘바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자사 공

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KT샵’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이케이티 앱’, 고객센터를 통한 휴대폰, 인터넷, TV 등 각종 통신 상품의 가입, 조회, 변경 등 대부분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샵에서 휴대폰을 신청하면 집 주변의 대리점을 통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다. KT샵 전용 서비스인 ‘여기오지’를 신청하면 안전 강화 교육을 이수한 KT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휴대폰 개통, 데이터 이전 등을 직접 처리해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인터넷TV(IPTV) 시작 시 나타나는 ‘가이드 채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내용을 자막으로 송출하며, 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고객에게 제공한 바 있는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LG유플러스의 주도로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한 달 통신비를 면제하는 등 유무선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메르스 피해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ICT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경우 메르스 때 보다 아직까지 사태가 크지는 않아 당장 통신비 감면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당시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 발생 후 186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는 38명에 달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보다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나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누적돼 메르스 사태처럼 커지면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판단이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도 협의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하기 때문에 사태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D 올레드 패널, UL서 검증마크 획득

(글로벌 안전과학기업)

블루라이트 IEC 기준보다 50% 낮아

LG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이 블루라이트 감소 능력을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글로벌 안전과학기업 UL로부터 대형 올레드 패널에 대해 ‘낮은 블루라이트 디스플레이’ 검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UL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평가법을 따라 블루라이트 방출량을 측정해 대형 올레드 패널에 검증 마크를 부여했다.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은 IEC 무해성 기준보다 50%나 낮은 수준으로 측정됐다. 동일한 크기 LCD TV와 비교해도 60%에 불과하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검증마크 획득을 통해 올레드 TV 가치를 한층 높일



LG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LG디스플레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레드 TV 고객사와 유통업체에 검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 TV사업부장 오창호 부사장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이 시청자의 눈 건강에 합리적인 디스플레이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OLED TV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인도·중동 사로잡을 SUV ‘쏘넷’ 공개



2020 인도 델리오토 엑스포 참가
하반기 양산, 동급 최대 편의사양

기아자동차가 인도 시장 입지를 다질 무기들을 선보였다. 2022년까지 30만대 판매 체제 구축 및 톱3 브랜드 등극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기아차는 5일 인도 노이다시 인디아 엑스포마트에서 열리는 ‘2020 인도 델리 오토 엑스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아차는 프리미엄 MPV인 카니발을 론칭하고, 소형 SUV 쏘넷 콘셉트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2개 모델은 최근 셀토스가 지난 5개월여만에 4만5292대를 판매하는 등 성공을 거둔 데 이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기아차 쏘넷 콘셉트. /기아자동차

후속 현지 전략형 RV 모델이다.

인도에서 판매될 카니발은 국내 3세대 카니발(YP)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된 모델이다.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최고급 MPV로 나파카죽 시트와 10.1인치 뒷좌석 터치 스크린 등 최고급 편의 사양을 갖췄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사전 계약 당일에만 1410대가 예약됐으며, 누적 3500대 이

상 계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쏘넷 콘셉트는 하반기 정식 양산할 쏘넷의 선행 콘셉트 모델이다. 인도 최대 볼륨 차급인 ‘SUV-로우’ 시장을 정조준했으며, 강인한 스타일과 동급 최대 IT 편의 사양을 갖춰 이름도 ‘스타일 리시’와 ‘커넥티드’를 합성해 지었다. 인도와 아태, 아중동 등 신흥 시장도 함께 공략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편의점에서 손쉽게 유심 구매하세요”

(세븐일레븐)

KT엠모바일 ‘셀프개통’ 페이지 개설

KT의 알뜰폰 자회사 KT 엠모바일은 세븐일레븐과 함께 통신 업계 최초로 5G 무약정 유심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유심을 구매할 수 있는 세븐일레븐 매장은 세종대로카페점, 소공점, 시그니처타워점, 중국대사관 점이며 추후 1만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 엠모바일 5G 유심을 구매한 이용자는 고객센터, 온라인 셀프개통 등을 통해 즉시 개통을 할 수 있다. KT 엠모바일 직영 온라인몰 내에는 세븐일레븐 전용 ‘셀프개통’ 페이지를 개설했다.

/김나인 기자

선택 가능한 5G 요금제는 총 2종이다. 기본료 4만5100원에 8기가바이트(GB)의 기본데이터와 1메가비피에스(Mbps)의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슬림 M’과 기본료 6만2700원에 200GB의 기본 데이터와 10Mbps의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스페셜 M’이다.

KT 엠모바일은 모든 5G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KT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영화, 여행, 쇼핑 등 프리미엄 멤버십을 누릴 수 있는 ‘M라운지’와 상해보험(5종 중 택 1)을 무료 제공한다. 제휴카드 추가 할인을 하면, 최대 1만7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 11번째 ‘A350’ 도입... 장거리 노선 확대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노선 확대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A350 11호기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A350은 ▲뉴욕 ▲LA(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4개 노선과 ▲런던 ▲파리 ▲리본에 투입돼 장거리 주력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네트워크 항공공사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A350을 2017년부터 도입했다. 올해는 11호기를 포함해 총 3대의 A350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재 도입에 맞춰 장거리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 도입식에서 김광석 부사장(왼쪽 네번째)이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선도 개척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집트 카이로·호주 멜버른, 지난해 10월 포르투갈 리스본 등 신규 장거리 노선 부정

기편에 취항했으며 뉴욕 노선을 일 2회로 증편하는 등 장거리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